

재개봉 영화 흥행…명작은 달라! ‘반지의 제왕’ 등 박스오피스 장악

‘역시 명작은 명작.’

판타지 블록버스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역대 두 번째 1000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최근 다시 선보이며 박스오피스에서 선전하고 있다. 잇단 신규 작품의 개봉에도 당당히 10위권 자리를 차지하며 ‘명작’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의 세 번째 작품인 2003년작 ‘왕의 귀환’과 두 번째 시리즈 ‘두 개의 탑’이 17일과 19일 잇따라 재개봉했다.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두 작품은 박스오피스 5위와 6위에 각각 올랐다.

역시 17일 선보인 2004년작 ‘태극기 휘날리며’도 첫날 9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모리타리안’ ‘브레이브 언더 파이어’ 등 신규 영화가 19일 개봉하면서 자리를 내줬지만 2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다. CJ CGV가 2000년대 전후 한국영화를 새롭게 선보이는 ‘시그니처K’ 상영관의 첫 작품으로, 관객의 만족도를 지수화하는 실관람객평가지수 97%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세 작품은 전국 최대 170여개, 최소 70여개 스크린에서 다시 관객을 만나면서 이 같은 성적을 기록해 더욱 눈길을 모은다. 이에 힘입어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감독은 19일 오후 7시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관객을 만나 영화에 얹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행사는 일찌감치 전 좌석 매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규 개봉작을 쉽게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관객의 ‘명작’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비친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개봉작 전체 관객은 전년보다 160.3% 늘어난 201만명이었다. 영화의 주 관객층으로 꼽혀온 20·30대 젊은층과 함께 이미 오래 전 영화를 본 중장년층의 극장행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영화진흥위원회는 분석했다. 윤여수 기자

연예뉴스 HOT 3

BTS 소속사 빅히트, ‘하이브’로 사명 변경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한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공개한 ‘뉴 브랜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 새로운 회사명을 공개했다. 방시혁 의장은 “기존의 공감대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의 사업을 아우르고 이를 연결,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의 상징으로 새로운 사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배경을 밝혔다. 빅히트는 30일 주주총회 결의 후 하이브를 새 사명으로 공식 적용할 계획이다.

이휘재, 브레이브걸스 사인CD 유출 사고

개그맨 이휘재가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사인CD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브레이브걸스의 사인CD를 구매했다”는 글을 올렸다. 첨부된 사진에는 2016년 발매한 ‘하이힐’ 앨범에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자필로 “이휘재 선배님께”라고 적은 메시지가 담겨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휘재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가수들에게 받은 사인CD 등은 담당 매니저가 차량에 보관한다. 어떤 경로로 해당 CD가 외부로 유출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2PM 준호, 멤버중 마지막으로 군 복무 마쳐

6인조 그룹 2PM의 준호가 멤버 중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준호는 20일 군 대체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준호는 2019년 5월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2PM은 대국 국적인 니쿤을 제외한 옥택연, 준케이, 우영, 찬성, 준호가 2017년부터 차례로 입대해 ‘군백기’를 가졌다. 이들은 최근 “올해를 2PM으로 꼭 채울 것”이라며 완전체 컴백을 예고하기도 했다. 준호는 가수 활동과 함께 드라마 ‘자백’ ‘김과장’ 등에 출연하며 연기 도 병행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블랙핑크 로제, 월드스타 위상 증명

여성솔로 최초·최다 신기록…‘로제 신드롬’

(K팝)

‘온 더 그라운드’ 영국 오피셜 43위
뮤비 공개 일주일 만에 1억뷰 돌파
앨범 초동판매량도 역대 최고 기록

‘솔로 최초, 최다 신기록…’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케이팝 여성 솔로가수로서 연일 기록을 갈아 치우며 월드스타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성장한 블랙핑크의 입지를 자양분 삼아 자신의 스펙트럼까지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끈다.

로제는 12일 발표한 솔로 데뷔곡으로 케이팝 여성 솔로가수로는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에 진입했다. 20일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로제의 첫 번째 싱글 ‘R’의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가 43위를 차지했다.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힌다. 앞서 로제는 블랙핑크의 멤버로 함께한 ‘킬 디스 러브’(33위), ‘하우 유 라이크 댓’(20위), ‘아이스 크림’(39위), ‘러브식 걸즈’(40위) 등을 차트에 올려놓았다.

오피셜 차트 성적이 공개되면서 자연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솔로 가수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2일 발표한 솔로 데뷔곡 ‘온 더 그라운드’가 영국 오피셜 차트의 43위에 올랐다.

스럽게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 200’ 순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피지컬(실물) 앨범을 16일 공개하면서 차트 순위는 3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앨범 선 주문량으로 기록한 ‘하프 밀리

언셀러’의 힘이 가세할 전망이다.

2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R’의 피지컬 앨범 선 주문량이 50만 장을 돌파했다. 역대 케이팝 여성 솔로 가수의 단일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수

치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팬들이 구매했다. CD 40만4318장, 키트(KIT) 4만9058장, LP 5만2129장으로 집계됐다.

‘온 더 그라운드’ 뮤직비디오의 파급력도 거세다. 12일 유튜브 공개 첫날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이어 글로벌 유튜브 송 차트 정상도 차지했다. 유튜브가 발표한 최신 차트(12~18일 집계)에 따르면 ‘온 더 그라운드’는 글로벌 유튜브 송 ‘톱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최근 1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로도 꼽혔고,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로제의 기록 행진에 블랙핑크까지 가세해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핑크의 ‘돈트 노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 안무 영상이 이날 오전 7시 유튜브 조회수 2억뷰를 넘어섰다. ‘돈트 노 왓 투 두’는 블랙핑크의 미니앨범(EP) ‘킬 디스 러브’의 서브 타이틀곡으로, 안무 영상은 2019년 4월15일 공개됐다.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닌, 멤버들이 연습실에서 안무를 맞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지만 역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안방에 퇴마물 몰려온다…전면에 선 감우성·장나라·김남길

감우성, ‘조선구마사’서 악령과 전쟁
‘대박부동산’ 장나라, 원귀 퇴치 나서
‘아일랜드’ 김남길 요괴 사냥 콘셉트

악령·귀신·요괴·좀바…. 상상 속 어둠의 존재들이 안방극장을 점령할 기세인 가운데 감우성, 장나라, 김남길이 이에 맞선다. 최첨단 영상기술력을 등에 업고 ‘퇴마’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잇따라 제작되면서 연기자들이 각기 다른 매력의 퇴마사로 세상에 나선다.

포문은 감우성이 연다. 22일부터 방송하는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에서 조선을 삼키려는 악령과 전쟁을 치르는 왕태종을 연기한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왕이 직접 퇴마에 나선다는 상상력을 가미했다. 사극과 오컬트 요소의 매력이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나라와 김남길은 4월14일부터 시작하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KBS 2TV ‘대박부동산’

는 KBS 2TV ‘대박부동산’과 하반기 편성된 OCN ‘아일랜드’의 주인공으로 각각 나선다. 장나라는 부동산 매물에 붙은 원귀를 퇴치한 후 이를 퇴파는 공인중개사 역

을 맡았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소재를 접목해 ‘생활밀착형 퇴마’라는 콘셉트를 내걸었다. 김남길은 요괴와 인간이 절반씩 섞인 ‘요괴 사냥꾼’을 연기

영화 ‘자산어보’ 보는 또 다른 재미…어벤져스급 우정출연

정진영, 류승룡, 김의성, 조우진, 최원영…

관객에게 낯익은 배우들의 면면이다. 다양한 작품의 주요연급으로 활약해온 이들이 한 무대에 모였다. 31일 개봉하는 영화 ‘자산어보’(제작 씨네월드)이다. 이들은 ‘우정출연’의 이름으로 ‘자산어보’의 실제 주조연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며 이야기를 풍성하게 한 또 다른 주역으로 꼽힌다.

‘자산어보’는 조선 순조 1년(1801년)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박해로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남도의 끝집 흑산으로 유배를 당한 뒤 바다생물에 해박한 청년어부 창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정약전은 창대의 도움으로 어류도감 ‘자산어보’를 완성한다. 영화는 이들이 드러내는 시선의 차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



정진영



류승룡



김의성



조우진

나의 창을 제시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연은 정약전 역 설경구와 창대 변요한, 그리고 이정은 등이다. 여기에 정진영, 류승룡, 김의성, 조우진, 최원영 등이 힘을 보탠다. 정약전을 기용한 정조 역 정진영, 정약전의 아우 정약용과 정약중 역 류승룡과 최원영, 흑산의 관리 조우진, 돈과 권력 때문에 창대를 버린 아버 김의성 등 ‘자산어보’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정출연’으로 등장한다. ‘우정출연’은 배우나 감독 등과 친분을 다져온 배우들이 작품의 기획의도와 이야기에 뜻을 같이하며 분량의 비중에 상관없이 출연하는 형태이다. 주로 출연료를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우정’어린 선의로 출연한다.

‘자산어보’의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 특히 이들을 캐스팅하는 데 설경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설경구는 일반에 잘

정진영·류승룡·조우진 등 지원사격
설경구 직접 찾아가 시나리오 건네

알려지지 않은 ‘자산어보’와 정약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관객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배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준의 감독은 “관객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접할 방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주저하는 이 감독 대신 설경구가 배우들에게 직접 시나리오를 건네 출연을 요청했고, 이들은 흔쾌히 화답했다.

그리고 각 캐릭터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18일 시사화 이후 이어지는 호평도 그 한 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규 개봉작이 드문 상황에서 낯익은 배우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도 관객에게 안긴다. 이준의 감독은 “(배우들과)마음이 통했다”면서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